

■ 2019년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 회의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10:30~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19년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지원사업은 무대, 영상, 음향, 조명 등 무대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창작자들에게 해외의 예술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을 확장시켜 세계적 가치관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지원자의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했으며 지원 분야도 무대, 영상, 음향, 조명 등 고르게 분포되었다. 그 중 조명분야가 지원자가 가장 많아 긴 토론을 요하였다. 지원자 모두 이번 지원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고 현장에서 다년간 실력을 다져온 경험자들이었다. 열정만으로 심의를 했다면 모든 지원자가 합격점일 수 있었으나 심의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

지원심사는 총 5명의 심의위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모든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전수검토의견을 작성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1. 지원동기 및 목표가 분명한가 2.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본적인 기술 능력과 디자인 적인 경험이 충분한가 3. 레지던스 기간 중 활동 계획이 충실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4.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 지원자 본인의 향후 활동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가 등이었다.

선정된 지원자들의 공통점은 국내에서 크루 활동부터 시작해서 오퍼레이터, 감독, 어시스턴트 과정을 거쳐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대예술의 가장 기본인 기술적인 능력을 쌓았고 팀을 지휘하는 역할을 거쳐 협업자로서 작품에 참여하는 디자인 역할까지 단계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의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지원자도 있었지만 극장이나 공연 시스템 보다는 현지 창작자들과 협업을 통한 공연 작업 문화를 경험하고 국내 창작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작품에 접근하는 다양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또한 해외 레지던스 기간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임을 감안할 때 사전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현지에서 적응하기 위해 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언어 수행능력 부분에서는 대다수의 지원자가 능숙한 단계는 아니었으나 국내와 해외에서

외국팀과 공연을 한 경험들이 다수 있는 관계로 본인들의 의지로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 한 지원자들은 열정과 의지는 강해보였으나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거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무대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들이었다. 내년에는 의상 및 무대감독 분야 등 좀 더 다양한 무대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지원자들 스스로도 관련 분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리서치하여 직접 제안하는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3년 만에 다시 재개된 무대예술 레지던시 사업은 많은 국내 창작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 더구나 소셜 네트워크 세대인 차세대들에게 해외 창작자들과의 협업은 그리 높은 울타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자들이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창작자들과 다양한 작업을 경험하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심의위원 일동